

# 신안군, 미세플라스틱 저감대책 중점추진

## 어선용 부잔교 충격 방지용 스티로폼 웬더 전수 조사 친환경 재질로 모두 교체...“청정 수산물 안전성 확보”

신안군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저감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저감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은 산업전반에 걸쳐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은 5mm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하는 것으로 해양쓰레기 중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매우 작아 수산생물의 먹이활동을 통해 체내에 축적되어 우리의 식탁에 올라와 최종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게 통상적인 사실이다.

신안군은 이러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량 저감을 위해 관내 어업인의 편의를 위하

여 전 읍면에 설치한 어선용 부잔교에 어선 접안시 충격 방지용으로 설치된 스티로폼 웬더를 전수 조사하여 친환경재질로 제작한 펜더(fender)로 모두 교체하는 사업을 순군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상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과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재투기를 예방하고자 기존에 지원했던 스티로폼 재질의 선상 집하장을 알루미늄 재질로 전국 최초로 제작하는 등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류의 마지막 보고이며 미래 먹거리 장소인 바다를 지키고, 국민의



식탁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며, 우리군 청정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에는 226개의 부잔교와 5,297ha의 양식어장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 함평군, 1인당 10만원씩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 지급 32억 투입...9월 1일~10월 31일까지

함평군은 코로나19 재확산 극복을 위해 추석 전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32억여 원을 투입하여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8월 1일 기준 함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지급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주간이다.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또한, 9월 1일과 2일 이틀간은 마을별 직접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군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함평=김광훈기자

## 목포시, 관광지 주변 숙박 업소·음식점 지도점검 강화

목포시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음식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9월 개최될 목포뮤직플레이 등 각종 행사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음식점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음식점은 4천여개소로 시는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총 10개 점검반을 운영해 가격표 게시에 따른 가격 준수 여부, 고객행위 등을 점검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을 높게 받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주문 전 가격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물가에 적절한 가격 등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요금에 대한 이용 가격, 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등 공중위생 서비스 실태조사를 완료하면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업 목포시지부가 편의시설 정도 등에 따라 등급별 주중, 주말 적정요금을 업소별로 제시하고,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거쳐 적정 요금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8월부터 숙박업소·음식점의 불만사항에 대해 'ONE STOP(원 스톱)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한편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친절한 손님맞이, 깨끗하고 정직한 서비스, 적정가격 준수 등에 대한 의지도 모았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광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창업학교) 수료식 가져

영광군은 지난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창업학교) 수료식'을 통해 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창업을 희망하고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지역혁신경제연대에 위탁하여 7월 26일부터 5주간 총 8차례에 걸쳐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사례공유, 비즈니스모델 수립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였고, 수료식 후 사

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과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영암군, 2030년까지 관용차량 무공해차로 전환

영암군은 2030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구연한이 도래한 영암군 소유 자동차 신차 구입시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청소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한 관용 차량을 2025년까지 39%, 2028년까지 81%,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 승용차 111대, 화물차 64대 등 전기자동차 175대에 대한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미래차 보급 및 충전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확대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앞장서는 영암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068백만원,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 1,836백만원, 소규모 방치시설 설치 지원 630백만원,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306백만원 등 총 5,95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 무안군-중국 상숙시, 청소년 친선 온라인 바둑대회 개최

서로의 승패 떠나 우정 나누는 무대

무안군은 지난 25일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상숙시와 청소년 교류의 일환으로 온라인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안군과 무안군바둑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온라인 친선바둑대회에는 각 나라별로 7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온라인 바둑 플랫폼에서 진행됐다.

무안군 대표팀은 오룡초 최의재(남, 2단), 행복초 이용준(남, 6단), 남악초 변수창(남, 5단), 부주초 이승재(남, 3단), 한국바둑중 임재현(남, 6단), 남악중 조용우(남, 4급), 남악중 서수영(남, 6단)으로 구성됐다.

경기는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날 참가한 선수들에게는 친선바둑대회증서와 참가상이 수여됐다.

무안군 자치행정과장은 “서로의 승패를 떠나 마음껏 최고의 기량을 펼쳐주신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가 바둑을 통



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무대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숙시와의 교류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과 상숙시는 2013년 전라남도 중국대표부의 소개를 통해 결연의향서를 체결

한 이후 교류방문, 청소년 홈스테이 등을 통해 상호 간의 문화를 공유해왔으며, 앞으로도 우호증진을 위해 활발히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